

“순교 신앙으로 악의 파도 막아설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 선포식 및 출정식 열려
‘순교 역사 현장’ 양화진~신안 565km 여정
차별금지법 등 거센 파도, 하나 되어 막자
전국 281개 시군구에 서울 때까지 순례 계속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 선포식 및 출정식이 1일 서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순례는 ‘많은 분의 핏값으로 지켜진 한국교회’ 이제는 우리가 지켜낼 차례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소위 ‘성역명’ 등에 반대하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국토순례는 올해는 ‘한국교회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진행된 다. 서울 양화진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의왕, 화성, 평택을 거쳐 천안 서북구, 세종, 부여, 서천, 군산, 김제, 고창, 영광, 함평, 무안, 신안에 이르는 565km의 여정이다.

순례단은 이들 지역에 있는 양화진선교사묘원, 제암교회, 매봉교회, 공주중학동구선교사가옥, 아펜젤러기념선교교회,

군산구암교회, 만경교회, 대창교회, 금산교회, 두암교회, 덕암교회, 아월교회, 염산교회,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을 돌아본다. 아울러 각 지역을 거치며 차별금지법 반대 지역선포식과 순교지 특별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 본격 선포식에 앞서 우선 예배를 드렸다. 노근재 목사(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영일 목사(서기총 공동회장)의 기도,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의 설교, 장동우 목사(서기총 실무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심하보牧사는 설교에서 “과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었기에 복음이 지켜졌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파도, 성평등이라는 거짓 평등의 파도,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거센 물결들”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 선포식 및 출정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라고 했다.

심 목사는 “하나님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무너지면 나라와 가정과 다음세대가 무너진다. 그 리스도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석문 목사(서기총 인권위원장)가 사회를 본 2부 선포식에선 먼저 심하

보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심 목사는 “거룩한방파제 제7차 국토순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환영한다”고 짧게 인사했다.

이어 안희환 목사(서기총 실무회장)가 축사를 했다. 안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그 제정을 막고 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목사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 거룩한 싸움을 싸웠던 주님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국토순례를 한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전했다.

최상운 목사(서기총 공동회장)도 발언에 나섰다. 최 목사는 “운동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공격과 수비다. 공격이나 수비, 어느 한쪽만 하면 진다.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수비를 먼저 해야 한다. 선수비 후공격인 것”이라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 먼저는 마귀의 거센 파도를 잘 막아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라고 했다.

이어 주요섭 목사(서기총 공동회장)가 시민단체를 대표해 발언했다. 주 목사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와서 느끼는 것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도 이곳에 와서 목숨을 던진 선교사들의 마음”이라며 “이번 국토순례를 통해 그 뜻을 세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누군가는 이 땅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저 역시 아픔에 덮인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심정으로 활동하고 있다.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한 악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격

정만 해선 안 된다. 내가 먼저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거룩한방파제 국토순례 단장인 홍호수 목사가 소감을 전했다. 홍 목사는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세대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전국 281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꼭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걸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시길”이라고 했다.

한편, 거룩한방파제는 지난 2015년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교단, 시민단체가 연합해 동성애억어축제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된 단체다. 이후 전국 281개 시군구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3년 5월 제1차 순례를 시작했다.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572km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이후 2차는 목포를 시작으로 임진각까지 이어진 약 596km, 3차는 경주에서 통일전망까지 402km, 4차는 진도에서 거제까지 517km, 5차는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설악까지 432km, 6차는 제주도를 도는 234km의 코스였다. 김진영 기자

교육부 ‘종교지도자 대학법인 지정’ 개정안, 교계 반발로 보류 가능성

교육부가 추진 중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이 교계 반발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 동안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본래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는 오는 5일 이후 곧바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개신교 신학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내부적으로 보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은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만 지정 대상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준에 따라 기존 21개 대학법인 중 11개만 유지되고, 기독교 교육학과·교회음악학과·사회복지학과 등은 일반 학문 계열로 분류돼 이 학과를 운영하는 신학교들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목록엔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등 다수 신학교들도 포함됐다. 교육

부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분류를 근거로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 여부를 판단했다.

일부 신학대학들은 이번 기준이 대학의 전공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교육학과와 유사한 과정을 운영하더라도 학과 명칭에 따라 종교학으로 분류돼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확인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원에서 제외된다면 신학교들은 대학 운영에 있어 기독교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나왔다. 지정 대학은 해당 교단이 법인 이사회의 결정을 추천할 수 있으나, 지정에서 제외될 경우 일반 대학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을 거쳐 기독교 정체성과 무관한 개방이사가 선임되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 개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두란노 아버지학교 30주년… 44만여 명 수료자 배출

서울 양재은누리교회에서 최근 열린 두란노아버지학교 30주년 기념 세계대회 ‘파더블레스(Father Blessing) 202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지난 30년간의 아버지운동 여정을 되짚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내외 수료자와 봉사자, 가족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축제와 학술, 나눔의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아버지학교 체험, ‘아빠는 12살’ 놀이 체험, 한국 기독교 역사 속 믿음의 아버지 세미나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성 사중장팀 크루스와 광주아버지학교 파하모니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최성완 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이 미래 30년을 향한 비전을 발표하고 아버지들의 다짐 의식이 이어

졌다.

최 이사장은 “아버지가 아버지 됨의 기쁨을 누리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며 “가정 안에서 경험한 사랑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사회와 이웃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삶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1995년 고 하용조 목사의 주도로 시작된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바람직한 정체성과 역할을 교육하는 남성 전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아버지가 참여하면서 사회운동으로 확산됐으며, 국내 74개 지부와 78개국 해외지부에서 지금까지 44만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1998년부터 매년 비전을 선포하며 아버지운동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2005년 10주년에는 ‘아버지들이여, 순결하십시오!’, 2015년 20주년에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세계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두란노아버지학교

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을’, 2019년부터는 ‘파더블레스’라는 이름으로 세계대회를 이어왔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의 30년에도 모든 아버지가 손을 맞잡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대회는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세대와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노형구 기자

2025-2026
강원 방문이 해
CheorWon

철원
CheorWon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담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

햇불전망대

UNESCO
Global Geopark

한탄강지질공원
Hantan River Geopark

철원군
Cheorwon